

조선총독부의 시정기념 사진그림엽서로 본 식민지 지배의 선전과 왜곡

Propagation and distortion of colonization based on picture postcard celebrating start of administra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저자 (Authors)	신동규 Shin, Dong Kyu
출처 (Source)	일본문화연구 67 , 2018.7, 5-34(30 pages) Japanese Cultural Studies 67 , 2018.7, 5-34(30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아시아일본학회 The Association of Japanology in East Asia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491109
APA Style	신동규 (2018). 조선총독부의 시정기념 사진그림엽서로 본 식민지 지배의 선전과 왜곡. 일본문화연구, 67, 5-34
이용정보 (Accessed)	동아대학교 39.113.137.*** 2020/04/25 14:31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조선총독부의 ‘시정기념 사진그림엽서’로 본 식민지 지배의 선전과 왜곡*

신 동규

<국문초록>

본고는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시정기념 사진그림엽서를 종합적으로 고찰해본 것으로 이하의 내용들을 밝혔다. 첫째, 엽서에는 일본의 굴절된 역사관과 사상이 이식되어 있고,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1910년 시정기념엽서로 전설상의 진구황후와 ‘삼한정벌’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의 ‘일선동조론’을 실제 역사와 같이 표상화시키는 것이었다. 둘째, 엽서에는 조선의 식민지 근대화를 강조하기 위해 사진을 왜곡하는 등 고도의 프로파간다 수법이 잠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 엽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근대화 관련 엽서는 오히려 ‘자원→가공→유출’이라는 식민지 수탈 구조의 증거가 되는 것이며, 이를 볼 때 시정기념 사진그림엽서는 식민 지배를 자축한 일제의 굴절된 자화상이었다.

키워드 : 조선총독부, 시정기념, 사진그림엽서, 한국병합, 진구황후, 근대화

목 차

서론

제1장 시정기념엽서의 분석과 분류

제2장 엽서에 이식된 일본 역사관과 사상

제3장 식민지 근대화의 선전과 왜곡

결론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A2A03925848).

서론

대한제국은 일본에 의해 1910년 8월 22일 침탈적인 ‘한국병합조약’을 강제 체결하게 되었고, 이 조약이 8월 29일에 공포·발효되면서 일제의 식민지 조선이 되었다. 이와 함께 일제는 조선총독부를 설치하면서 본격적인 식민지 지배에 착수하는데, 초대 총독은 3대 통감을 지냈던 테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였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조선 지배가 시작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910년 10월 1일부터 이른바 시정기념 사진그림엽서(始政紀念繪葉書, 이하 ‘시정기념엽서’로 약칭)¹⁾를 다수 발행하였는데, 10월 1일은 9월 30일에 공포된 ‘조선총독부관제’가 시행된 날 짜로서 조선총독부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가동된 날이기 때문에 기념일로 삼은 것이다.

필자가 ‘시정기념엽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초등학교’ 시절 때부터의 우표수집 차원에서 엽서를 수집한 것이 계기가 되었지만, 보다 중요한 이유는 최근에 들어와 선행연구로부터 엽서 그 자체가 정보 전달 매체로서의 원초적 역할 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그림 이미지를 통해 당대 최고의 미디어로서 정치권력의 프로파간다 역할이라는 기능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田邊幹 2002, 中原雄太郎 2005, 권혁희 2005, 김수현 2009a, 毛利康秀 2015). 더욱이 수년 전에는 그간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시정기념엽서’를 발견함으로써 시리즈 전체를 수집하여 상세히 검토할 기회를 얻었다는 점도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엽서 시리즈는 대략 2~3매가 1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1910년 시정원년, 1911년(1주년)~1920년(10주년), 1925년(15주년), 1935년(25주년), 1940년(30주년)의 10월 1일에 발행되어 14회에 걸쳐 총 38매가 발행되고 있다. 38매만이 안되지만, 이 엽서들은 조선총독부 식민지배의 기본노선에 대한 선전과 왜곡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1급 자료들이다. 시정엽서에 대한 연구는 이가연(2008)과 김국화(2015)의 학위논문 2편이 선구적이라 할 수 있

1) 일본에서는 에하가키(絵葉書)라고 통칭하여 1910년부터 사용이 시작되었으나, 그림엽서만이 아닌 사진엽서도 대량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필자는 이전부터 ‘사진그림엽서’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다(신동규 2017a:149-151). 참고로 일본의 선행연구는 전술한 논문을 참조바라며, 본고에서 사용한 엽서·우표는 모두 필자가 소장한 것이다. 또한, 당시 엽서의 통상적인 크기는 140mm×90mm이기 때문에 각기 엽서의 크기는 기입하지 않는다는 점, 논지의 전개상 엽서를 반복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는데, 전자는 조선의 식민지 이미지, 후자는 1933년까지의 관제엽서까지 시야에 두고 조선의 이미지를 폭넓게 고찰하고 있어 본고에 시사해주는 점이 많았다. 그러나 두 논문이 시정기념엽서 전체상을 언급한 것은 아니며, 1935년의 시정 25주년과 1940년의 시정 30주년 엽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또한 오윤빈(2014)은 엽서를 이용해 미술사적인 관점에서 근대 한국 이미지의 형성을 고찰하고 있는데, 조선 이미지의 '재생산과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권혁희(2003, 2005) 연구²⁾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1925년의 시정 15주년까지를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1935년에 발행된 『朝鮮總督府発行の記念郵便絵葉書』(朝鮮通信協會編, 1935)만을 참조하였기 때문이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그간 시정기념엽서의 전체상을 규명할 수 없었다. 참고로 조선총독부 체신국에서 발행한 『朝鮮通信事業沿革史』(1938)에는 시정 25주년(1935)까지 수록하고 있다. 이외에 김수현(2009b)은 시정기념엽서 일부를 사례로 들어 조선총독부의 치적과 홍보용이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역시 선행연구사적 의미로서 여기에 소개해둔다.

한편, 일본인 아메미야 히로스케(雨宮宏輔)가 2008년에 충청남도에서 기증한 시정기념엽서 25매를 소재로 삼아 서흥석(2008)은 1910년부터 1920년까지 11년간의 엽서에 대한 해제를 붙이고 있는데, 1920년까지의 시정기념엽서의 개관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그러나 “1920년도를 끝으로 더 이상 관보에 시정기념엽서 발행에 관한 고시사항이 보이지 않고, 현재 남아있는 것도 없는 것으로 보아 1921년부터는 발행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서술한 부분, 또 “1929년도 ‘조선박람회 기념 그림엽서’와 같은 종류의 것들이 시정기념 그림엽서를 대체해 나간 것이 아닌가 한다.”라고 주장한 부분이 있는데(서흥석 2008:42), 이러한 논점은 명확한 오류다. 즉, 시정기념엽서는 1925·1935·1940년에도 발행되고 있었고, 박람회를 기념한 엽서들은 이미 대한제국기인 1907년 경성박람회, 1915년 ‘조선물산 공진회’, 1926년 조선박람회 때에도 발행되고 있었으며, 1925년에 『관보』에도 시정기념엽서에 대한 발행이 고시되고 있었다.³⁾

2) 권혁희는 서양의 제국주의가 조선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발현되었는가에 대한 논증을 위해 사진엽서에 주목하여 식민지 조선의 모습을 ‘재현의 정치학’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3) 『官報』 제3952호, 1925년 10월 26일, 『朝鮮總督府告示』 제245호(일본국회도서관). “조선총독부 시정 15주년 기념을 위해 기념 회엽서를 발행하고 우편국 및 우편소에서 이것을 판매한다. 그 정

이에 본고에서는 그간 학계에 소개되지 않았던 1935년의 시정 25주년 엽서(3매 1세트) 및 처음으로 발견한 1940년의 시정 30주년 엽서(3매 1세트)를 포함해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시정기념엽서의 모든 시리즈를 소재로 삼아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고찰해보고자 한다.

첫째는 이들 시정기념엽서의 발행 목적과 분류 및 엽서에 이식된 일본의 역사관과 사상을 도출해 내는 것이며, 둘째는 엽서상의 이미지와 도안에 내재된 조선 식민지 지배의 합리화를 비롯해 식민지 조선의 근대화 모습을 어떠한 도식으로 선전·왜곡했었는지를 검토하여 이들 엽서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제1장 시정기념엽서의 분석과 분류

이른바 시정기념엽서라는 것이 조선에서만 발행된 것은 아니다. 이미 1905년 6월 6일의 「台灣總督府告示」 제73호에 의하면 ‘타이완총독부 시정10년 기념회엽서’를 동년 6월 17일부터 3매 1세트(6진)의 구성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일제 최초의 시정기념엽서로서 이 고시의 내용을 번역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타이완총독부 시정 10년 기념회엽서 제1회 발행의 종류, 발매 가격 및 발매 기일은 아래와 같음.

1905년(明治38) 6월 6일 타이완총독 남작 고다마 겐타로(児玉源太郎).

종류 3종 1조.

一, 타이완신사.

二, 타이완총독 관저와 타이완총독 고다마 남작.

三, 타이완 시골.

판매가격.

1조(3종) 6진 1조 이하 남은 수량의 발매를 행함.

발매기일.

1905년 6월 17일부터⁴⁾

가 및 발매 기일은 아래와 같다. 1925년(大正14) 9월 24일, 조선총독부 총독 사이토 마코토(齋藤実). 정가 3매 1조에 15진. 발매기일 1925년 10월 1일.”

또한, 타이완총독부 이외에도 1906년 8월 3일에는 '가라후토민정서(樺太民政署) 시정 1주년 기념회엽서'(3매 1세트)가 발행되었고, 1907년 6월 15일부터는 '가라후토청 시정기념엽서'(樺太庁)가 30주년까지 25회나 발행되었으며(島田健造 2009:112-145), 1907년 8월 21일 『關東都督府告示』 제59호에 의하면, '관동도독부 시정1주년 기념회엽서'가 2매 1세트(15전)로 9월 1일부터 판매가 개시되고 있었다.⁵⁾ 이외에 1925년부터는 '내몽골자치정부(察南自治政府)', 1938년에는 '몽고연맹자치정부', 1942년에는 '화중지구(華中地區)'와 '홍콩점령지총독부(香港占領地總督府)', 1943년에는 '필리핀국정부' 등 일본 침략지에서의 괴뢰정부 수립과 시정을 기념한 엽서들이 발행되고 있었다(島田健造 2009:208-242). 즉, 일본 본토를 제외한 외지나 식민지, 또는 '15년 전쟁' 중에 점령했던 침략지 등에서 발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른바 시정기념엽서라는 것은 일제의 식민지배와 침략행위를 정당화시킬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도표 1] 조선총독부 발행 시정기념엽서에 대한 분석표

엽서 연번	발행일	봉투 표제어 (총독부 생략)	세트구성 (가격/錢)	개별 엽서의 표제어(도안 소재)	그림 사진	근대화 관련	분류 유형	(일본)관보 고시 (조선)관보 고시
1	1910.10.1	시정기념 우편회엽서	2매 1세트 (10)	香椎宮(진구황후[神功皇后] 초상)	그림	×	A	明治『官報』8188 統監府『官報』26
2				내지와 조선 아동 유희의 그림(아동들/일장기/자두꽃/벚꽃)	그림	×	A	
3	1911.10.1	시정1주년기념 우편회엽서	2매 1세트 (10)	양장·인삼과 백운동 식림 제1차년·제4차년의 비교(인삼꽃)	복합	○	C/D	明治『官報』8477 朝鮮『官報』316
4				竹島 등대/인전의 수도수원지/광양만 염전(한강철교/붉은 접시꽃)	복합	○	D	
5	1912.10.1	시정2주년기념 우편회엽서	2매 1세트 (10)	서당과 보통학교	복합	○	D	大正『官報』44 朝鮮『官報』40
6				조선인시장과 경성남대문 밖의 신도로(붉은 접시꽃)	복합	○	D	
7	1913.10.1	시정3주년기념 우편회엽서	3매 1세트 (10)	부산 제1천교와 임시창고/부산정차장/부산우편국	복합	○	D	大正『官報』347 朝鮮『官報』338
8				재령의 철산/평양의 무연탄광(붉은 패랭이꽃과 도라지꽃)	복합	○	D	
9				압록강에서의 벌목 조재(造材)/압록강 상류에서의 조재 관류(管流)/압록강 상류에서의 유별(流筏)(나무 단면 옆보상 도안)	사진	○	C/D	
10	1914.10.1	시정4주년기념 우편회엽서	3매 1세트 (10)	금강산 기슭 만물상/사자봉(단풍/독수리)	그림	×	B	大正『官報』644 朝鮮『官報』636
11				移民의 주택/移民의 쌀농사(농부의 제조 모습과 물대는 모습)	복합	×	C	
12				경성의 조선호텔(鐵道局當局)/진남포 축학의 계선벽(繫船壁)(단청)	복합	○	D	

4) 『官報』 제6588호, 1905년 6월 17일, 『台灣總督府告示』 제73호(일본국회도서관).

5) 『官報』 제7258호, 1907년 9월 6일, 『關東都督府告示』 제59호(일본국회도서관).

엽서 연번	발행일	봉투 표제어 (총독부 생략)	세트구성 (가격/錢)	개별 엽서의 표제어(도안 소재)	그림 사진	근대화 관련	분류 유형	(일본)관보 고시 (조선)관보 고시
13	1915.10.1	시정5주년기념 우편회엽서	3매 1세트 (10)	경성우편국	그림	○	D	大正「官報」944 朝鮮「官報」937
14				함경남도 신포의 명태어장/부산 어시장(새 우/미역/명태/도미/어선)	복합	○	C/D	
15				군산항 미국 집적의 상황/목포항 면화 집 적의 상황(벼이삭/면화)	복합	○	C/D	
16	1916.10.1	시정6주년기념 우편회엽서	3매 1세트 (10)	臨瀛 수리조합 제방/秦川의 관개사업 전방 강 제방(수차/담)	복합	○	D	大正「官報」1245 朝鮮「官報」1236
17				조선피혁주식회사 공장/동아연초주식회사 공장(연초/공방대/매듭)	복합	○	D	
18				해인사 고려대장경판 격납고/석왕사(단청/ 사원 그림)	복합	×	B	
19	1917.10.1	시정7주년기념 우편회엽서	3매 1세트 (10)	제2대 조선총독 하세가와 요시미치와 용산 의 총독부 관저(오동나무/월계수/국화)	복합	○	A/D	大正「官報」1498 朝鮮「官報」1532
20				개성 인삼재배의 모습	그림	×	C	
21				용강 쌍용총 벽화(고구려 남녀 복장)	그림	×	B	
22	1918.10.1	시정8주년기념 우편회엽서	3매 1세트 (10)	황해도 경이포 미쓰비시제철소 전경/용광 로/해탄로(가을을 대표하는 7가지 화초)	복합	○	D	大正「官報」1842
23				대정수리조합사업 수원지의 취입구/회군산 수도·수로(용천군 지도)	복합	○	D	
24				경상북도 안동군 누에고치 공동판매/강원 도 세포 관립 면양목장(누에/나방/뽕잎/양)	복합	○	C	
25	1919.10.1	시정9주년기념 우편회엽서	3매 1세트 (10)	일본 횡단로 사용선 立神丸/청진항에서 유 출되는 나물과 콩/성진항에서 유출되는 소 (일본횡단항로 지도/갈매기/패랭이꽃)	복합	○	C/D	大正「官報」2142 朝鮮「官報」2130
26				인천항 독(dock)의 모습/일항선 같은 통과 의 모습(범선/파도문양)	복합	○	D	
27				경성 제사장/조선총독부 제생원의 맹아교육 현장(누에/뽕잎/정자/국화문양/오동나무잎)	복합	○	C/D	
28	1920.10.1	시정10주년기념 우편회엽서	2매 1세트 (10)	우측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좌측 미 즈노 렌타로(水野鍊太郎) 정무총감(초상/한 강철교)	복합	○	A/D	大正「官報」2491 朝鮮「官報」2434
29				평안북도 신의주 조선제지주식회사/평안남 도 승호리 고노다(小野田)시멘트제조주식 회사(상단에 성곽)	복합	○	D	
30	1925.10.1	시정15주년기념 우편회엽서	3매 1세트 (15)	관폐대사 조선신궁(구름/청동경/국옥 문양/ 도리이/소나무)	복합	×	A	大正「官報」3952 朝鮮「官報」3932
31				사이토 마코토 총독/시모오카 추지(下岡忠 治) 정무총감/조선총독부신청사/경성 시가 (오동나무 문양 양보신/15주년 표시의 X)	복합	○	A/D	
32				이왕가 수건식(收蕐式)/경성제사장(누에/농 촌풍경/어망/어류)	복합	○	C/D	
33	1935.10.1	시정25주년기념 회엽서	3매 1세트 (10)	성장에 가는 조선(1910년과 1933년 비교/ 한반도/가마니/우체통/기차/선박)	그림	○	D	朝鮮「官報」2612
34				금강산 만물상 옥녀봉	그림	×	B	
35				물 갈는 조선 남성과 여성	그림	×	C	
36	1940.10.1	시정30주년기념 회엽서(國威宣揚· 堅引持久)	3매 1세트 (미상)	인구/학교와 생도수(학교/학생들/통계표)	복합	○	D	고시 없음
37				예산총액/인당 저축/수출입 무역액(무역 선/북주머니/통계표)	복합	○	D	
38				총생산액/철도 길이(공사/통계표)	복합	○	D	
유형 분류				*아래 유형수는 위의 '유형 분류'에서 복합 유형을 포함한 전체 48개 유형수 중의 개수를 의미함. ■ A형: 6개, B형: 4개, C형: 11개, D형: 27개 ■ 전체 유형수: 48개 ■ 근대화 관련 엽서 매수: 전체 38매 중 28매(73.7%) ■ 근대화 관련 유형 매수: 전체 48매 중 27매(56.3%)				

한편, 조선총독부의 시정기념엽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1910년 10월 1일을 시작
으로 1940년 시정30주년 기념엽서에 이르기까지 총 14회에 걸쳐 모두 38매가 발

행되었는데, 이들 엽서들의 발행 시기, 세트 구성과 내용, 도안 소재, 근대화 관련과 특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 [도표1]이고, 이를 통해 엽서들의 유형을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A형: 일본의 역사적 인물과 조선총독부 고위관료의 초상을 이용하거나 가공의 이야기 또는 신도 관련을 통해 식민지배의 성과를 선전한 것으로 [도표1]의 연번 1번에 보이는 이른바 '삼한정벌' 설화로 유명한 진구황후의 초상, 2번 조선과 일본 아이들의 유희, 28번 사이토 마코토(齋藤美) 총독 등의 엽서([그림 1]).
- B형: 조선의 문화유산 및 관광지를 표상화한 것으로 10번의 금강산, 18번의 해인사 등의 엽서([그림 2]).
- C형: 조선의 전통적 생활 모습과 특산품 생산을 소재로 표상화한 것으로 3번의 인삼, 24번의 누에고치와 면양 등의 엽서([그림 3]).
- D형: 식민지 조선의 근대화 모습을 표상화시킨 것으로 전근대와 근대적인 모습의 비교, 근대적 대규모 공장·산업시설과 도시·건축물의 선전, 농수산물 생산물의 증산 현황과 통계 비교를 통한 근대화 선전 엽서로 15번 군산항의 미곡과 목포항의 면화 집적 상황 엽서([그림 4]), 6번의 전통적인 조선인 시장과 경성 남대문 밖의 신도로를 비교한 엽서([그림 5]) 등이다.



[그림 1] A형, 시정 기념(원년):
내지와 조선 아동 유희의 그림



[그림 2] B형, 시정 4주년:
금강산의 만물상과 사자봉



【그림 3】 C형, 시정 8주년:
안동군 누에고치와 강원도 면양



【그림 4】 D형, 시정 8주년:
황해도 검이포 미쓰비시 제철소

이상과 같이 조선총독부의 시정기념 엽서들은 네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는데, [도표 1]의 분류 항목에 보이듯이 상당수의 엽서들이 유형 간에 복합적으로 결합되어(두 가지 이상의 유형으로 결합된 엽서가 16매) 조선 식민지 지배의 합리화를 표상화시키고 있다. 이들 표상화의 특징들을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D형, 시정 2주년:
조선인 시장과 남대문 밖의 신도로

첫째, 사진과 그림 도안이 복합적인 구성을 이루어 화려하게 인쇄되고 있으며, 엽서의 재질이 상당히 좋고, 동시대에 발행된 사진 중심의 사제엽서들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조선총독부 시정기념 엽서만의 특징이 아니라, 전술한 일본 이외의 식민지나 침략지에서 발행된 같은 부류의 기념엽서들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는데, 이는 식민지배

【도표2】 A~E형 엽서의 분류 유형별 점유율



의 최고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관제 사진그림엽서라는 특수성과 지배의 당위성을 선전하기 위한 최대의 홍보물로서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둘째, 시정기념엽서 도안 내용의 상당 부분이 근대화와 관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도표 1]을 보면 전체 38매의 엽서 중에 근대화와 관련이 있는 것은 28매로 73.7%를 점하고 있으며, [도표 2]의 결합 유형의 점유율을 보더라도 전체 유형수의 합계인 48개 중에 근대화 관련인 D형이 27개로 56.3%를 점하고 있어 과반이 넘어서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조선의 문화유산 및 관광지를 표상화한 B형이 8.3%로 제일 낮아 시정기념엽서라는 것이 조선의 전통문화에 대한 선전과 홍보라기보다는 식민지 지배의 합리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셋째, 시정기념엽서가 1910년부터 1920년까지는 매년 발행되었다가 이후에는 1925년, 1935년, 1940년에만 발행되면서 줄어들고 있는데, 현시점에서 명확히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이유는 식민정책의 변화와 침략정책으로의 전환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즉, 1920년대 이후부터는 총독부의 조선지배가 10년 이상 흘러간 시점으로 일정 부분 안정화된 추세에 접어들어 엽서 발행의 필요성이 약화되었고, 1930년대 이후부터는 일본의 침략정책이 노골화되면서 1931년의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과 이후의 총동원체제 등으로 엽서의 발행보다는 전시체제로의 전환이 더 급했기 때문이다.

제2장 엽서에 이식된 일본 역사관과 사상

사진그림엽서가 동시대의 세상을 비추어왔던 거울과 같은 역할로서 가장 큰 정보전달 매체였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프로파간다로서 선전 매체의 역할도 1905년 '러일전쟁'을 전후한 시기의 이른바 '엽서의 봄' 시대를 거치면서 더욱더 강화되어 갔다. 이후 팽창하는 일본 제국주의를 선전하기 가장 좋은 매체로서 엽서는 더욱 활용도가 높아졌고, 이러한 상황은 1910년 한국병합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 대표적 사례가 조선총독부 프로파간다의 일환으로서 시정기념엽서라는 관제 사진그림엽서를 발행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 일제는 식민지배의 합리화, 조선 근대화의 선전 및 자원 수탈의 정당성을 굳혀나갔다.

시정기념엽서를 이용한 식민지배 합리화의 술책은 여러 가지 시각에서 언급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들 엽서에 이식된 일본 역사관과 사상, 그리고 1910년 병합 이후 조선에 대한 식민지 근대화의 선전과 왜곡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보겠다. 우선 본장에서는 전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후자의 근대화 관련 부분은 제3장에서 검토하겠다.



[그림 6] 봉투

[그림 7] 시정 기념(원년): 가시이궁과
진구황후 초상[그림 8] 시정 기념(원년):
內地及朝鮮之兒童遊戲之圖

그렇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일본의 역사관이 엽서에 이식되어 간 것일까. 이것을 제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1910년 10월 1일에 최초로 발행된 시정기념엽서 2매 세트인데, 바로 [그림 6·7·8]이다. 우선 [그림 6]의 봉투를 보면 앞면에는 ‘시정기념 우편회엽서’라는 표제와 함께 발행처(조선총독부)가 인쇄되어 있고, ‘조선총독부 시정기념’ 도장이 1910년 10월 1일자로 날인되어 있으며, 뒷면에는 정가가 ‘금10전’으로 인쇄되어 있다. 다만, 앞면의 오른쪽 상단에 ‘증정’이라고 스탬프가 날인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볼 때 첫 번째의 시정기념엽서는 판매와 함께 총독부나 총독부 산하 통신국에서 증정용으로도 배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⁶⁾ 이 봉투에 삽입되어 있던 세트 엽서가 [그림 7·8]인데, [그림 7]은 가시이궁(香椎宮)을 배경으로 진구황후의 초상을 삽입한 도안이며 1910년 10월 1일 경성의 시정기념 날짜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가시이궁은 후쿠오카시(福岡市)에 있는 신사로서 『香椎宮編年記』에 의하면 723년 2월 6일에 진구가 조영을 시작해 724년 12월 20일에 사당으로 창건되었

6) 이후 발행된 시정기념엽서의 일부 봉투들에도 고위 관료들의 이름이 스탬프로 날인되어 증정용으로 배부된 사례가 있고, 또 1930년의 ‘시정25주년 기념엽서’는 판매용 이외에 특별히 증정용이 따로 인쇄되고 있었다.

고, 14대 주아이천황(仲哀天皇)·진구황후(神功皇后)·16대 오진천황(応神天皇)과 스미요시노 오키미(住吉大神)를 제신으로 삼고 있다(香椎宮社務所 1983:1). 이들은 ‘삼한정벌’ 설화의 주역과 조연들인데, 엽서에는 그 주역이었던 진구황후의 초상까지 삽입하고 있다. 4세기 중반 무렵부터 약 200여 년간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고 하는 전설상의 ‘삼한정벌’ 설이라는 왜곡된 일본사 이야기가 병합을 기념하기 위한 최고의 소재로서 역사를 왜곡하며 엽서에 이식된 것이다. 이것은 사제 사진그림엽서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여기서는 한 발 더나가 진구황후 ‘삼한정벌’ 설화의 연장선상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조선침략 →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의 정한론 →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대한제국 침략까지도 도식화시키고 있었다(신동규 2017a:161-165).

이렇게 진구황후가 당시 일본에서 재부상하게 된 것은 “메이지 초기 정한론에서부터 1910년 한국병합에 이르기까지 ‘조선반도’를 자국의 영토로 하려는 근대정책의 흐름”(及川智早 2006:3)이었고, 이러한 현상은 이미 1908년 진구황후의 우표([그림 9]) 발



[그림 9] 1908년 2월 20일에 발행된 진구황후 우표 (일반적으로 ‘기쿠우표(菊切手)’라고 불리며, 당시에는 5엔과 10엔의 최고 고액 우표였다)

행으로도 발견되고 있었다. 우편사 연구가인 나이토 요스케(内藤陽介)가 진구황후의 초상우표에 대해 ‘진구황후의 부활’이라고 평하면서 “삼한정벌 전설의 히로인이었던 진구황후의 초상을 우표라는 국가 미디어로 부활시킨다는 것은 현실로 다가온 한국의 식민지화를 정당화시키려는 의식의 표현”(内藤陽介 2005:76-77)이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한제국 식민지화를 위한 일본의 술책이었다. 강조하자면, 1910년 병합 당시 엽서에 가시이궁과 진구황후를 표현한 것은 영토의 장악과 식민지화가 완성되었다는 선전·홍보인 동시에 그러한 침략적 행위에 대한 합법성과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한 프로파간다였던 것이다.

한편, [그림 8]의 엽서는 ‘내지와 조선 아동 유희의 그림(内地及朝鮮之兒童遊戯之図)’이라는 표제가 왼쪽 하단에 인쇄되어 있다. 활짝 핀 자두나무 꽃(李花, 대한제국 황실의 상징)과 벚꽃을 배경으로 8명의 조선과 일본의 아동들이 손을 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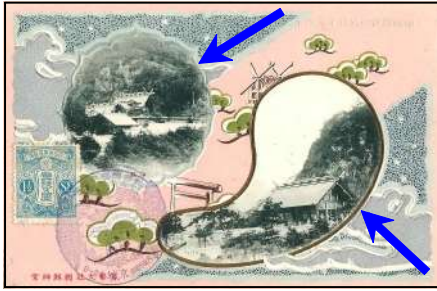
고 원을 이루고 있으며, 그 원 안에는 일장기를 양손에 들고 흔들고 있는 일본인 소녀가 그려져 있다. 한마디로 한국병합을 즐거이 축하하는 조선과 일본의 아동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가연(2008:19)은 이 모습을 ‘내선융화’로 평가하고 있다. 일정 부분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지만, ‘내선융화’나 ‘내선일체’라는 용어와 사상은 1920년대 초엽부터 사용되기 시작해 1930년대 후반에 강화된 사상들로 약간 시기적인 모순을 보이고 있다. 어찌되었든 당시 이러한 축하행사가 실제로 있었는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지만, 최소한 이와 관련된 사진들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아 상상의 선전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림 7]의 세트 엽서와의 관련성에서 생각해 볼 때 단순한 상상화로 치부할 수 없는 그림이다. 즉, 진구황후의 ‘삼한정벌’ 설화에서 파생되어 1890년대에 등장하였고, 1900년대 초부터 강화되기 시작한 ‘일선동조론’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언하자면, 조선은 원래 진구황후가 정벌하여 200여 년간 지배했던 곳으로 일본과 조선은 원래 같은 조상의 후손이기 때문에 약 1,540여년 만에 하나의 일본으로 병합된 날을 조선과 일본의 아동들이 축하하고 홍보하는 엽서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 7·8]에서 허구의 ‘삼한정벌’ 설화와 ‘일선동조론’을 2매의 세트 엽서로 제작해 마치 실제의 역사인양 이식시킨 것이다.

이러한 왜곡된 역사적 사실과 일본사상의 이식은 이후 발행된 시정기념엽서에서도 계속되었다. 시정 15주년 기념엽서에서는 이른바 천황가문에 대를 이어 전해지는 이른바 ‘삼종의 신기(三種神器)’ 중의 2개인 청동경과 곡옥의 형태를 도안으로 사용하여 황국사관을 이식하거나([그림 10]), 다른 엽서에서는 일본의 전통적 꽃이나 문양을 이용하는 형태로 계속 표출되었다. 꽃문양의 사례를 보면, 시정 2주년의 ‘조선인 시장과 남대문 밖의 신도로’ 엽서([그림 11])에서는 귀여운 아이들 내지는 여성, 또는 들판의 가련하고 청초한 꽃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패랭이꽃(撫子), 그리고 시정 3주년의 ‘재령 철산(철광)과 평양의 무연탄광’ 엽서([그림 12])에서는 전술한 패랭이꽃과 함께 성실·청초·순종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도라지꽃(桔梗)⁷⁾ 도안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법은 마치 미숙하고 순진한 전근대의 조선을 일본이 근대화시켰다는 일종의 우월적인 문명론의 시각을 드

7) 본고에서 언급된 꽃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 <https://lovegreen.net/>(검색일: 2018.3.20.)

러내는 것이었다. 패랭이꽃(撫子)과 도라지꽃(桔梗)은 『万葉集』에도 등장하는 일본의 전통적인 꽃으로 무가 집안의 가문(家紋)이라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다.



[그림 10] 시정 15주년: 관폐대사 조선신궁 (화살표 부분이 청동경과 곡옥의 도안)



[그림 11] 시정 2주년: 조선인 시장과 경성남대문 밖의 신도로

가장 대표적인 도안은 국화와 오동나무 문양으로 모두 천황가와 매우 밀접한 관련 있다. 전국시대(戰國時代) 이전까지만 해도 천황가에서는 양쪽 모두를 사용했으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동나무 문양을 사용하고, 또 다이묘(大名)들도 이 오동나무 문양을 사용하자 황실에서는 점점 국화 문양만을 사용하게 되었다. 국화 문양이 황실을 의미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사실로 여기서 상세히 언급하지 않겠지만, 근대 시기에 국화를 사용한다는 것은 천황의 프로파간다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를 시정엽서에 사용했다는 것은 천황에 의한 식민지 장악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동나무 문양에 대해서는 이가연(2008:27-28)과 필자(2017b: 156-157)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⁸⁾ 근대에 이후에 들어와서는 일본의 최고 권력기관, 즉 통감부와 조선총독부의 문양으로도 사용되고 있었다.



[그림 12] 시정 3주년: 재령의 철산과 평양의 무연탄광

8) 오동나무 문양에 대해서는 이하의 자료를 참조함. 高沢等(2008)『家紋の事典』, 東京堂出版.

우선 [그림 13]은 시정 7주년 기념엽서(3매 1세트) 중의 1매로서 제2대 총독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의 초상을 도라지꽃 문양이 둘러싸고 있고, 하단에는 총독부 관저를 국화와 월계수, 상단에는 오동나무 문양이 장식되어 있다. 또한, [그림 14]의 시정 11주년에서는 사이토 마코토(齋藤実) 총독(우)과 미즈노 렌타로(水野鍊太郎) 정무총감(좌)의 초상 사이에 오동나무를 삽입하였고, [그림 15]의 시정 15주년에서도 사이토 마코토 총독(우)과 시모모카 주지(下岡忠治) 정무총감(좌)의 초상 사이에 엠보싱 처리한 오동나무 문양을 넣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오동나무 도안은 총독 등의 고위관료 초상과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⁹⁾



[그림 13] 시정 7주년: 제2대 총독 하세가와 및 총독부 관저



[그림 14] 시정 10주년: 사이토 마코토(좌) 총독과 미즈노 렌타로(우) 정무총감



[그림 15] 시정 15주년: 사이토 마코토(우)와 시모모카 주지(좌), 총독부 신청사와 경성 시가

이렇게 당시에 국화나 오동나무 문양을 사용한 것에 대해 이가연(2008: 28)은 “1910년대 중반을 넘어서고 나서야 자신 있게 엽서에 등장한다. 특히 오동나무와 국화 등 바로 보기만 해도 총독부와 일본 황실을 떠올릴 정도로 상징성이 강한

9) 이러한 사례는 본고에서 제시한 [그림 20]에도 보이며, 이외에도 당시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관찬 사진그림엽서의 기념인([그림 22])이나 뒷면에 우표를 붙이는 점선의 사각 표시 안에도 오동나무 문양을 삽입한 엽서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것은 병합 초기에는 쓸 수가 없었을 것이다. 어쨌든 무력을 앞세워 조선을 병합했지만, 그 명분인 동화의 이미지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조선인들을 자극할 만한 상징물은 신지 않았던 것이다.”고 하여 국화·오동나무 문양이 초기에는 사용되지 않았고, 1910년대 중반부터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1910년 이전의 통감부 통치 때부터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그러한 사례가 너무나 많아 본고에서는 대표적인 사례만 제시하고 넘어가겠다.



[그림 16] 이토
통감착임기념엽서



[그림 17] 한국황제양위와
일한신협약성립1



[그림 18] 한국황제양위와
일한신협약성립2



[그림 19] 황태자전하
한국도항기념



[그림 20] 황태자전하
한국행계기념



[그림 21] 황태자전하
한국도항기념

[그림 16-21]의 엽서들은 모두 1910년 병합 이전에 발행된 것들인데,¹⁰⁾ [그림 16]은 통감부에서 1906년 3월 28일에 이토 통감의 착임을 기념하여 제작·배부한 엽서로 이토 자신이 그린 국화를 엽서 좌측에 배치하였고, [그림 17·18]은 1907년 ‘한국황제양위와 일한신협약성립’ 기념엽서 세트로 [그림 17]에서는 고종·순종황제의 뒤쪽 정중앙에 황실의 국화문양을, [그림 18]에서는 이토 초상과 통감부 깃발 뒤쪽에 국화를 배치시키고 있다. [그림 19·20]은 1907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일본 황태자(후에 다이쇼천황[大正天皇])의 한국 방문을 기념한 엽서들로 [그림 19]에서는 방문할 때 승선한 가토리(香取)호와 한국 궁성의 사진 뒤에 국화 문양을 배치함과 동시에 하단부에는 오동나무 문양을 배치했고, [그림 20]에서는 이토

10) [그림 16-21]은 이전의 논고에서도 인용한 엽서들이다(신동규 2017b).

와 총독관저 뒤에 역시 오동나무 문양을 배치하고 있으며, 황태자가 인천에서 경성으로 이동할 때 탑승했던 [그림 21]의 열차 엽서에서도 오동나무 문양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림 16·21]은 통감부에서 발행한 관제엽서이고, 나머지는 사제엽서인데 모두 1910년 이전부터 국화나 오동나무 문양을 사용하고 있다. 즉, 국화나 오동나무 문양이 이용된 것은 병합 이후인 1910년대 중반이 아니라, 1905년 러일전쟁 이후 외교권을 박탈하면서 통감부가 한국을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도 관제나 사제 사진그림엽서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1900년 이후 사진그림엽서가 유행하면서 이미 한국에 대한 침탈이 공공연하게 엽서에 이식되어 진행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무튼 언제부터 국화와 오동나무 문양이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논점은 접어두고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식민지 지배의 합리화라는 논점이다. 즉, 당시 통감부나 조선총독부의 관제 사진그림엽서에 오동나무 문양이 통상적으로 사용되었고, 지금도 일본국 정부나 내각총리대신(수상)을 대표하는 공식적인 문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시정기념엽서에 오동나무 문양을 삽입함으로써 일본의 강제 병합과 식민지 지배를 합법화함과 동시에 그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프로파간다적인 수법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제3장 식민지 근대화의 선전과 왜곡

본장에서는 일본제국주의가 엽서를 이용해 어떠한 방식으로 식민지 조선의 근대화를 홍보하였으며, 또 이를 통해 식민지 지배를 어떠한 내용으로 합리화시키나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일제의 식민지 조선에 대한 근대화의 홍보와 선전은 팸플릿·사진첩·관광 선전물·조선안내도를 비롯해 관찬 서적의 발행과 박람회·물산공진회 개최, 견학단의 파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추진하고 있었지만, 본고에서는 일단 시정기념엽서에 한정해 살펴보고 전술한 내용들은 금후의 과제로 삼겠다. 우선, 근대화의 선전은 ① 전근대와 근대적인 모습의 비교, ② 근대적 자원 개발과 대규모 공장 및 산업시설, 도시·건축물의 홍보, ③ 농수산물의 증산과 기반시설 등의 통계를 비교한 수법이 사용되고 있었다. 물론, 이들이 북

합적으로 결합된 형태의 엽서들도 있는데, 이를 순차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첫째, 전근대와 근대적인 모습의 비교를 보여주는 엽서들이다. 우선, [그림 22]는 시정 1주년(1911) 엽서로 서울 창의원 안에 있던 백운동 식림사업의 1년차와 4년차를 비교하고 있는데, 하단 오른쪽의 1년차는 1908년 봄 농



[그림 22] 시정 1주년: 양잠·인삼과 백운동 식림 제1차년·제4차년의 비교

상공부 산림국에 의한 최초의 대규모 식림사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¹¹⁾ 하단 왼쪽의 4년차는 1911년의 모습으로 그간 숲이 무성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식림은 바로 1908년 1월 21일에 법률 제1호로 반포된 산림법¹²⁾에 따른 근대화 사업의 일환이었다. 다만, 이 산림법은 산림국의 일본인 수석기사 미치야 미쓰유키(道家充之)가 입안한 것으로 한국의 상황을 무시하고, 자본력이 우세한 일본인 부호를 유치하고자 했던 일본의 의도가 반영된 것(강정원 2014a:25-27)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조선의 근대화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원활한 식민통치와 국유림의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이었다. 결국 초기의 산림법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고, 1911년에 한국의 임야를 ‘국유임야’로 강제 편입시켜 경제적 약탈을 목적으로 새롭게 ‘산림령’(강정원 2014b:298-305)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바로 [그림 22]의 엽서에 보이는 1년차와 4년차 식림사업의 실체였고, 결과적으로 식림사업이라는 근대화의 표상은 식민지 자원수탈을 목표로 진행된 것으로 근대화가 목적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근대화 전후를 더욱 강렬하게 비교한 엽서로 [그림 23·24]의 시정 2년 기념엽서 세트도 있다. 2매 엽서 모두 어두운 배경으로 디자인한 것은 당시 다이쇼 천황이 메이지천황의 상중에 있었기 때문인데,¹³⁾ [그림 23]에서는 초가집이 즐비한 조선인 전통시장의 모습과 남대문 근처의 근대화된 신도로를 대비시키고 있으

11) 『해조신문』, 1908년 4월 26일, 『植林模範計』.

12) 『대한협회회보』 제1호, 1908년 4월 25일, 『官報抄略(隆熙二年一月爲始)』.

13) 朝鮮總督府通信局(1938), 앞의 책, 『記念郵便絵葉書』의 ‘朝鮮總督府始政二周年記念’ 항목. 일종의 도록으로 쪽수 표기가 없음.



[그림 23] 시정 2주년: 조선인시장과 경성 남대문 밖의 신도로(붉은 접시꽃)



[그림 25] 統監府, 『韓國寫真帖』, '대구시장'



[그림 24] 시정 2주년: 서당과 보통학교의 비교



[그림 26] 統監府, 『韓國寫真帖』, '内地의 私塾'



[그림 27] 統監府, 『日韓併合紀念 大日本帝國朝鮮寫真帖』, '한성 사범학교 교실'

며, [그림 24]에서는 식민지 이전의 전통적인 교육기관으로서 서당과 식민지 이후 근대 교육의 시작으로 보통학교의 모습을 대비시켜 마치 일본의 식민지화로 인해 조선의 근대 교육이 이루어진 듯이 그 성과를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용된 [그림 23]의 조선인 시장, 그리고 [그림 24]의 서당과 보통학교 사진은 이미 1910년 7월 1일 통감부에서 발행한 『韓國寫真帖』(統監府 1910)¹⁴에 '대구

14) 이 사진첩은 1910년 9월 30일에 통감부에서 『日韓併合紀念 大日本帝國朝鮮寫真帖』(小川一真出版部, 일본국회도서관 디지털 컬렉션)이라는 명칭으로 약간 수정을 가해 다시 출판되었다. 다만, 일본국회도서관에 소장된 이 사진첩은 결락된 부분이 다수 있다.

시장'([그림 25]), '내지의 사숙(私塾)'([그림 26]), '한성사범학교 교실'([그림 27])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이를 엽두에 두고 볼 때, 이 사진들은 1910년 8월 28일 병합이전에 촬영된 것으로서 조선총독부가 지배를 시작한 이후의 사진들이 아니다. 즉, 조선총독부 시정을 기념하기 위한 엽서로는 시기적인 모순이 내재되어 있다. 그만큼 일제침략이라는 것이 이미 통감부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그 선전 수법이 흥미롭다.

즉, 시정 2주년 엽서에 사진을 설명한 표제어는 전술한 통감부 사진첩에 수록된 [그림 25·26·27] 사진의 표제어와 다르다. 즉, '대구시장'→'조선인시장', '내지의 사숙'→'서당', '한성사범학교 교실'→'보통학교'의 변경에서 알 수 있듯이 식민지 이전 시대의 명칭은 극히 비근대적인 토속적 명칭으로 바꾸고, '한성사범학교 교실'은 1912년 엽서발행 당시 초등교육의 대표적 명칭인 보통학교로 둔갑시켜 선전한 것이다. 식민지 이전의 조선에서는 1894년 9월부터 이미 근대교육기관으로서 관립소학교(보통학교) 5개교를 설립하였고, 점진적으로 학교 수를 증가시켜 병합 무렵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으며(전민호·최승현 2016: 6-9), 또한 1897년 대한제국 선포 이후에도 근대적 교육제도의 개혁과 교육기관의 설립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김홍수 1994, 이계형 1999, 전상숙·노상균 2013). 이러한 근대 교육의 개화기 상황 속에서 한성사범학교는 1895년 2월 고종의 교육조직 반포 후에 소학교의 교원양성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동년 4월 19일 칙령 79호로 관제를 반포하면서 설립된 학교였으며, 제1회 입학생을 4월 27일에 모집하여 5월 1일에 개교한 조선정부의 관립학교였지(노인화 1985: 12-14) 보통학교가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조선총독부는 조선정부가 설립한 근대 학교의 이미지를 지우고, 1906년 8월 통감부의 영향 하에서 공포된 '보통학교령'(전민호·최승현 2016:22-25)에 의해 한성사범학교를 보통학교로 왜곡시켜 식민지 근대화의 성과를 극대화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듯 왜곡된 정보가 왜 시정기념엽서에 표출되고 있는지 현 단계에서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식민지 지배 2년차인 만큼 시정기념엽서의 과장된 선전효과를 위해 왜곡시킨 결과가 아닐까 판단된다.

두 번째로 근대적 자원 개발과 대규모 공장 및 산업시설, 도시·건축물의 발전 상황을 통한 식민지 근대화의 선전이다. 시정기념엽서 38매 중에서 가장 많은 부



[그림 28] 시정 1주년: 죽도(竹島) 등대, 인천의 수도수원지, 평안남도 광양만 염전

입하고 있다. 한강철교는 미국인 모스가 조선으로부터 경인철도부설권을 획득하여 1897년에 착공했지만,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일본이 부설권을 인수해 1900년 7월에 준공한 다리이며, 1907년에 처음 점등한(水路部 1915:86) 죽도 등대는 진도군 조도면 맹골리에 위치한 등대로서 서남해 항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또 인천(현 노량진) 수도수원지를 비롯해 통감부가 1907년부터 개발한 평안남도 광양만 염전 개발은 그야말로 근대화의 표상이었지만, 이러한 개발과 건설 사업은 통감부의 자원수탈정책으로서 이미 시작된 기초 사업이었기 때문에 시정기념엽서에 이러한 곳을 선전했다는 것은 조선총독부의 시정이 통감부 수탈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시정기념엽서에 보이는 근대화의 실상은 조선총독부가 이를 의도했듯 안팎의 자원 수탈을 위한 기초 산업과 이를 위한 가공 산업, 그리고 이러한 물자들의 원활한 유출을 위한 항만·항구시설, 또는 항구에서의 유출 모습 등으로 식민지 수탈이라는 노선 안에서 표출되고 있었다.

그 사례를 보면, 앞에서도 언급했던 시정 1주년(1911)의 ‘양잠·인삼과 백운동식림 제1차년·제4차년의 비교([그림 22])’, 시정 3주년(1913)에서는 ‘채령의 철산과 평양의 무연탄광’([그림 12]) 및 ‘압록강에서의 벌목과 상류에서의 관류(管流) 및 유별(流筏)’([그림 29]), 4주년(1914)의 ‘이민의 주택과 쌀농사(농부의 제초 모습과 물대는 모습)’([그림 30]), 5주년(1915)의 ‘함경남도 신포의 명태어장과 부산 어시장’([그림 31]), 7주년(1917)의 ‘개성 인삼 재배’([그림 32]), 8주년(1918)의 ‘경상북도 안동군 누에고치 공동판매와 강원도 세포 관립 면양목장’([그림 33]) 등 식민지 조선의 농수산업과 광업, 산림 및 특산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산물들

을 엽서의 도안 소재로 삼고 있다. 일견하면, 조선의 산물 소개와 더불어 근대적 산업과 건축물을 통해 조선의 근대화를 선전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실상은 수탈의 대상이었던 자원들을 소재로 삼고 있다.



[그림 29] 시정 3주년: 압록 강에서의 벌목과 관류 및 유벌



[그림 30] 시정 4주년: 移民의 주택과 쌀농사



[그림 31] 시정 5주년: 함남 신포의 명태어장과 부산 어시장



[그림 32] 시정 7주년: 개성 인삼재배의 모습



[그림 33] 시정 8주년: 경상북도 안동군 누에고치 공동판매와 강원도 세포 관립 면양목장



[그림 34] 시정 6주년: 임의 수리조합 제방과 진천의 관개사업 천방강 제방



[그림 35] 시정 8주년: 대정수리조합사업 수원지의 취입구와 회군산의 수도·수로



[그림 36] 시정 8주년: 황해도 검이포 미쓰비시제철소 전경과 용광로 및 해탄로



[그림 37] 시정 9주년: 경성 제사장과 조선총독부 제생원의 맹아교육현장



[그림 38] 시정 15주년: 이왕가 수견식(收藏式)과 경성 제사장



[그림 39] 시정 10주년: 신의주 조선제지주식회사와 승호리 고노다 시멘트제조주식회사

첫 번째 단계가 수탈 대상이었던 자원이었다면, 두 번째 단계는 그 연장선상에서의 보다 효율적인 자원 수탈과 이들에 대한 가공 산업의 선전이었다. 시정 6주년(1916)의 ‘임익 수리조합 제방과 진천의 관개사업 천방강 제방’([그림 34]), 8주년(1918)의 ‘대정수리조합사업 수원지의 취입구와 회군산의 수도·수로’([그림 35]) 업서는 농업 생산량의 증산을 도모한 사업의 선전이었고, 시정 8주년의 ‘황해도 검이포 미쓰비시제철소 전경과 용광로 및 해탄로’([그림 36]), 시정 9주년(1919)에 보이는 ‘경성 제사장’([그림 37]), 시정 15주년(1925)의 ‘이왕가 수견식(収繭式)과 경성 제사장’([그림 38]), 시정 10주년(1920)의 ‘평안북도 신의주 조선제지주식회사와 평안남도 승호리 고노다(小野田)시멘트제조주식회사’([그림 39]) 등은 자원의 가공 산업에 대한 선전이었다.



[그림 40] 시정 2주년: 부산 제1잔교와 임시창고/부산 정치창 우편국



[그림 41] 시정 4주년: 경성의 조선호텔과 진남포 축항 개선벽



[그림 42] 시정 5주년: 군산항 미국 집적과 목포항 면화 집적 모습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최종단계라고 할 수 있는 자원들을 유출하는 루트로서 항만·항구시설의 확충이나 항구에서 자원 유출의 모습을 담은 시정기념엽서도 발행하고 있었다. 바로 시정 2주년(1912)의 ‘부산 제1잔교와 임시창고’([그림 40]), 시정 4주년(1914)의 ‘진남포 축항의 개선벽(繫船壁)’([그림 41]), 시정 5주년(1915)의 ‘군산항 미국 집적 상황과 목포항 면화 집적 상황’([그림 42]), 시정 9주년(1919)의 ‘일본 횡단로 사용선 다테가미마루(立神丸)와 청진항에서 유출되는 나물과 콩, 성진항에서 유출되는 소’([그림 43]), 그리고 같은 해의 ‘인천항 독(dock)의 모습과 입항선 갑문 통과의 모습’([그림 44])인데, 이러한 엽서들은 그야말로 근대화를 가장한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의 자축이었고, 그 성과를 포장한 일종의 기념물이었다.



[그림 43] 시정 9주년: 일본 횡단로 사용선 다테가미마루(立神丸)와 청진항에서 유출되는 나물과 콩, 성진항에서 유출되는 소



[그림 44] 시정 9주년: 인천항 독(dock)의 상황과 입항선 갑문 통과의 상황

세 번째는 농수산물의 증산과 기반 시설 등의 통계를 비교한 근대화 관련으로 시정기념엽서 38매 중에 7매가 있다.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앞서서도 제시한 시정 5주년(1915)의 '함경남도 신포의 명태어장과 부산 어시장'([그림 31]), '군산항 미곡 집적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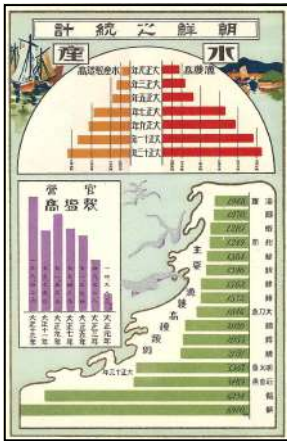
[그림 45] 시정 6주년: 조선피혁주식회사 공장과 동아연초주식회사 공장

과 목포항 면화 집적 상황'([그림 42]), 시정 6주년의 '조선피혁주식회사 공장과 동아연초주식회사 공장'([그림 45])의 엽서로 각기 엽서 주변부에 수산업과 미곡·면화의 증산 통계를 인쇄해 조선의 산업화를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그림 42] 엽서에 인쇄되어 있는 산출량 대비 유출량(수출량)을 비교해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유출량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도표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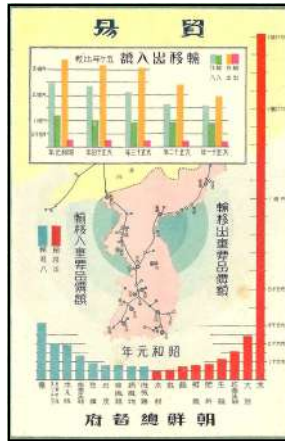
[도표 3] 시정 5주년 엽서에 보이는 쌀과 면화의 수확량 및 유출량 분석 비교표([그림 42]의 엽서에 인쇄된 수치로 수확량 대비 유출량 비율 수치는 필자의 계산에 의한 것임)

쌀	연도	1912년(大正元年)	1913년(大正2年)	1914(大正3年)
	경작 면적	9,819,431 丁	10,460,471 丁	10,793,412 丁
	수확량	8,982,000 石	10,090,645 石	12,159,167 石
	유출량	577,930 石 (6.47%)	874,583 石 (8.67%)	1,321,870 石 (10.87%)
면화	연도	1912년(大正元年)	1913년(大正2年)	1914(大正3年)
	재배 면적	517,111 丁	578,790 丁	615,724 丁
	생산량	30,283,131 斤	35,544,595 斤	36,167,841 斤
	유출량	2,482,500 斤 (8.19%)	3,535,600 斤 (9.94%)	4,408,800 斤 (12.18%)

즉, 쌀의 경우는 6.47%(1912년)→8.67%(1913)→10.87%(1914년), 면화의 경우는 8.19%(1912년)→9.94%(1913년)→12.18%(1914년)로 해가 갈수록 생산량 대비 유출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수출이라는 명목 하에 일본으로 유출되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일제의 식민지 산업 근대화라는 허울 좋은 선전의 내면에는 실제 조선에서 보다 많은 물자의 수탈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6] 조선총독부 통계엽서 '수산'(1925년 전후)



[그림 47] 조선총독부 통계엽서 '무역'(1927년 전후)



[그림 48] 시정 25주년: 성장해 가는 조선

이렇게 조선총독부의 통계를 이용한 식민지 근대화를 선전은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조선의 호구·무역·재정·농업·광산·수산·교통·교육·토지의 증가를 대상으로 발행하고 있었다. 이른바 ‘조선통계엽서’라는 것인데, 현재 확인되는 것만도 70여 매 이상에 달하여 이에 대한 검토도 필수적이거나 본고에서는 금후의 과제로 남기고 1925·1927년 전후에 발해진 엽서([그림 46·47]) 2매만 소개하고 넘어가겠다.

한편, 위와 같이 통계를 이용해 특정 단일 물품의 산출량이나 유출량을 기입하는 단계에서 시정 25주년(1935)이 되면 다양한 물품과 산업 발전의 통계를 1매의 엽서에 담아 선전하기 시작했다. 이미 식민지 지배가 25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를 선전하기 위한 수법으로 이미 전년도인 1934년부터 시정 25주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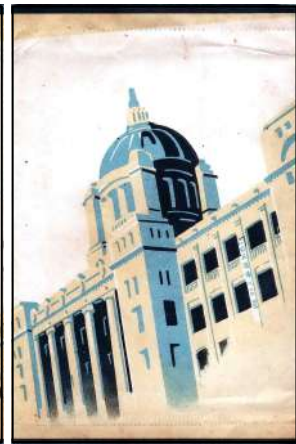
기념하기 위한 책자 1만부가 발행되어 배포되기 시작했고,¹⁵⁾ 1935년 3월부터는 대규모 기념행사 개최를 위한 의견 타진과 그 준비 절차에 들어가고 있었다.¹⁶⁾ 또한 식민 지배에 공이 있거나 장기근속자, 또는 각종 사회 활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표창과 포상¹⁷⁾을 실시함과 동시에 각 지역 관공서에서는 다양한 기념식을 실시하는 등 그야말로 축제의 분위기를 띄워 시정 25주년을 기념하였는데, 바로 [그림 48]의 엽서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조선의 근대화를 종합적으로 선전하는 엽서였던 것이다. 제목은 '성장해가는 조선'으로 전체가 한반도 도안의 배경 위에 크게 4개 부류의 산업, 즉 ① 농공산업, ② 우편산업(우편·전신·전화), ③ 철도산업, ④ 무역의 성장을 선전하고 있는데, 시정 원년인 1910년(明治43)과 1933년(昭和8)까지의 통계를 비교하고 있다. 그만큼 병합 이후 25년간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엽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형식은 최종적으로 30주년(1940) 시정기념엽서(3매 1세트)를 발행하면서 완성적인 형태를 이루게 되는데, 바로 이 엽서가 서론에서 전술한 지금까지 그 존재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엽서이며, 본고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자료이다.

우선, [그림 49·50]을 보면 봉투 앞면 중앙부 왼쪽 모서리 부분에 '始政三十周年記念'이 세로로 인쇄되어 있고, 중앙부에는 '국위선양 견인지구', 하단부에는 발행처인 '조선총독부'가 인쇄되어 있다. 이미 중일전쟁이 1937년에 시작되었고, 1938년에는 그에 따른 중동원체제가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전



[그림 49] 시정 30주년 기념엽서의 봉투 앞면



[그림 50] 시정 30주년 기념엽서의 봉투 뒷면

15) 『부산일보』, 1934년 12월 7일, 「總督始政25周年史 500쪽 되는 서적을 1만부 작성 배포」.

16) 『부산일보』, 1935년 3월 21일, 「시정 25주년에 全鮮에서 기념일-각종 개최를 행함. 각도의 의견을 듣고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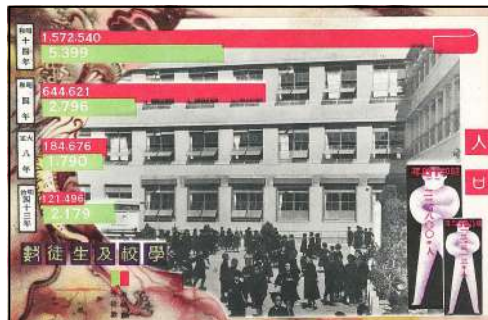
17) 『朝鮮總督府官報(号外)』, 1935년 10월 1일, 「始政二十五周年記念表彰者」.

의양양의 선정적인 표어가 인쇄된 것이라 생각되며, 엽서 세트를 발송할 수 있도록 상단부 오른쪽에는 우표를 첨부하는 사각형의 점선도 인쇄되어 있다. 물론 봉투 뒷면에 그려진 것은 조선총독부 청사이다. 흥미로운 것은 3매의 엽서에 그려진 통계들로 앞에서 본 [그림 48] 통계엽서의 확장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들의 엽서의 뒷면 중앙부에는 각기 ‘始政三十周年記念’의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데, 앞면의 내용을 표로 정리해보면 [도표 4]와 같다.

[도표 4] 시정 30주년 기념엽서 3매 세트에 보이는 통계 수치
(엽서3의 1938년 액수는 광산액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

엽서	항목	연도			
		1910년	1919년	1929년	1939년
엽서 1	인구	13,313,000 名			22,800,000 名
	학교수	2,179 校	1,790 校	2,796 校	5,399 校
	생도수	121,496 名	184,676 名	644,621 名	1,572,540 名
엽서 2	예산총액	48,741,000圓(1911년)			866,641,000圓(1940년)
	무역(수출)	약 1천만 圓	약 2억 3천만 圓	약 3억 4천만 圓	약 10억 圓
	무역(수입)	약 3천만 圓	약 2억 7천만 圓	약 4억 2천만 圓	약 11억 圓
	저축(1인당)	1.58 圓			66.24 圓
엽서 3	총생산액	272,478,000 圓			3,073,958,000 圓(1938년)
	철도 길이	1,096 km(杆)			5,929 km(杆)

위의 [도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림 51-53] 3매의 세트 엽서는 인구·학교수·생도수·예산총액·무역(수출입)·저축·총생산액·철도 통계를 대상으로 병합 당시인 1910년도와 1940년 전후를 비교하여 총독부의 통치에 의한 30년간의 성장과 근대화의 모습을 선전하고 있다. 1940년이라는 시점에서 이미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서 침략전쟁을 통해 제국주의 팽창을 획책하던 일본에게 조선의 근대화 성공을 표상화시킨 엽서는 식민 통치의 모범으로서 타지역에 대한 침략과 지배의 당위성을 국내외에 홍보하는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소재였던 것이다. 그러나 1941년 진주만 공격으로 시작된 태평양 전쟁을 계기로 일본은 각지의 점령지와 식민지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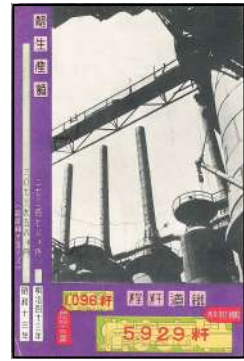


[그림 51] 시정 30주년: 인구, 학교 및 생도수

결국 1940년 시정 30주년 기념을 마지막으로 시정기념엽서의 발행은 중단되었다. 시정기념엽서라는 것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홍보·선전하기 위한 미디어 매체이기는 했지만, 타국에서의 '시정(始政)'이라는 일방적이고 침탈적인 용어가 표상하듯이 시정기념엽서의 발행 중단은 제국주의의 패망을 예견하는 것이었다.



[그림 52] 시정 30주년 예산 총액/인당 저축/수출입무역액



[그림 53] 시정30주년기념: 총생산액과 철도길이

결론

이상, 본고에서는 일제의 한국병합 이후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시정기념엽서를 소재로 삼아 몇 가지 점에서 논점을 검토해보았는데,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정기념엽서에는 일본의 굴절된 역사관과 사상이 이식되어 있었다.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1910년 시정기념엽서로 전설상의 진구황후와 '삼한정벌'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의 '일선동조론'을 실제 역사와 같이 표상화시키는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엽서에 일본의 전통적 도안과 국화·오동나무 등의 문양을 표상화시켜 이용함으로써 일본의 강제 한국병합과 식민지화를 정당화시키려 나갔다.

둘째, 시정기념엽서에는 조선의 식민지 근대화를 강조하는 고도의 프로파간다 수법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근대화의 홍보를 위해 관련 사진과 통계 등을 사용하고 있지만, 초기 단계의 엽서에 인쇄된 사진들을 보면, 그 실상은 병합 이전 사진의 실제 명칭과 시기를 왜곡하는 형태로 제국주의의 의도에 따라 이용된 것이었다. 더욱이 쌀과 면화의 생산 통계를 보더라도 생산량은 늘어나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량 대비 유풀량(수탈량)은 증가하고 있었다.

셋째, 조선총독부 시정기념엽서에 대한 평가이다. 이 엽서를 발행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조선에 대한 식민 지배의 합리화와 당위성을 선전하기 위한 것으로 그 근거가 바로 식민지 조선의 근대화라는 가시적인 성과였다. 그러나 근대화를 표상한 엽서들의 실상은 오히려 식민지 조선의 자원 수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으며,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엽서상의 이미지들은 ‘자원→가공→유통’이라는 식민지 수탈의 구조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즉, 이들 엽서는 오히려 일제의 의도와는 반대로 식민지 자원 수탈의 증거였던 것이다. 이를 볼 때, 식민지 조선의 근대화라는 것은 자원 수탈이라는 침탈적 행위를 가장한 일제의 기만이었으며, 이것을 표상화시킨 시정기념엽서는 조선의 식민 지배와 자원 수탈을 자축한 일본 제국주의의 굴절된 자화상이었던 것이다.

■ 참고문헌

- 신동규(2017a) 『근대 일본의 사진그림엽서(繪葉書)로 본 한일병탄의 선전과 왜곡』 『일본역사연구』 45, 일본사학회, pp.149-182.
- _____(2017b) 『대한제국기 사진그림엽서로 본 한일병탄의 서막과 일본 제국주의 선전』 『동북아문화연구』 51, 동북아시아문화학회, pp.151-169.
- 전민호·최승현(2016) 『개화기 관립소학교(보통학교)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22-3, 안암교육학회, pp.5-26.
- 김국화(2015) 『일제강점기 관제사진엽서를 통해 본 표상의 정치학-1906년부터 1933년까지 발행된 관제사진엽서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대학원 메타디자인학부 석사학위논문.
- 강정원(2014a) 『한말 일제의 산림조사와 삼림법 성격』 『한국근현대사연구』 70, 한국근현대사학회, pp.25-27.
- _____(2014b) 『한말 일제초기 산림정책과 소유권 정리』 『지역과 역사』 16, 부경역사연구소, pp.298-305.
- 오윤빈(2014) 『근대기에 형성된 한국이미지-사진엽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전상숙·노상균(2013) 『병합 이전 한국 정부의 근대적 교육체제 개혁과 관학』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2-1,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pp.87-112.
- 김수현(2009a) 『식민지 조선에서 온 엽서 1: 근대 그림·사진엽서의 탄생-식민통치 정당성 홍보와 돈벌이를 위한 제국주의 문화상품』 『민족21』 95, 민족21, pp.142-147.
- _____(2009b) 『식민지 조선에서 온 엽서3: 관제(官制) 기념엽서-조선총독부 치적 홍보용 식민지 조선인 피폐 실상 은폐』 『민족21』 97, 민족21, pp.143-145.
- 서홍석(2008) 『아메미야 히로스케 기증자료 소개-시정기념엽서를 중심으로』 『충청학과 충청문화』 7,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p.42.

- 이가연(2008) 「1910년대 조선총독부 발행 始政기념 사진엽서를 통해 본 식민지 조선의 이미지」, 동아대학교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권혁희(2005) 『조선에서 온 사진엽서』, 민음사.
- (2003) 「일제시대 사진엽서에 나타난 '재현의 정치학」 『한국문화인류학』 36-1, 한국문화인류학회.
- 이계형(1999) 「한말 공립소학교의 설립과 운영(1895~1905)」 『한국근현대사연구』 11, 한국근현대사학회, pp.197-222.
- 김홍수(1994) 「한국 근대 초등학교의 설립에 관한 연구: 1896~1906년의 공립소학교의 개교시기를 중심으로」 『춘천교대논문집』 34, 춘천교육대학교.
- 노인화(1985) 「大韓帝國 時期의 漢城師範學校에 관한 研究」 『이화사학연구』 16, 이화사학연구소, pp.12-14.
- 毛利康秀(2015) 「ツーリズムの視点からみた『メディアとしての絵葉書』の再検討」 『政経研究』 52-2, 日本大学法学部.
- 島田健造(2009) 『日本記念絵葉書総図鑑』, 日本郵趣出版. 香椎宮社務所(1983) 『香椎宮御由緒』, 香椎宮社務所, p.1.
- 高沢等(2008) 『家紋の事典』, 東京堂出版.
- 及川智早(2006) 「神功皇后伝承の近代における受容の諸相-絵葉書・引札というメディアを中心に」 『国文学研究』 148, 早稲田大学国文学会, p.3.
- 内藤陽介(2005) 『皇室切手』, 平凡社.
- 中原雄太郎(2005) 「明治の印刷物・新聞と絵はがきの役割」 『印刷雑誌』 88-6, 印刷学会.
- 田邊幹(2002) 「メディアとしての絵葉書」 『新潟県立歴史博物館研究紀要』 3, 新潟県立歴史博物館.
- 朝鮮總督府通信局(1938) 『朝鮮通信事業沿革史』, 朝鮮總督府通信局.
- 朝鮮通信協會編(1935) 『朝鮮總督府発行の記念郵便絵葉書』, 朝鮮通信協會朝鮮通信協會.
- 水路部(1915) 『東洋灯台表(上卷)-日本・支那・露領沿海州』, 水路部.
- 小川一真出版部(1910) 『日韓併合紀念 大日本帝國朝鮮写真帖』, 小川一真出版部.
- 統監府(1910) 『韓国写真帖』, 統監府.
- 『부산일보』, 1935년 3월 21일, 「시정 25주년에 全鮮에서 기념일-각종 개최를 행함. 각도의 의견을 듣고 결정」.
- 『부산일보』, 1934년 12월 7일, 「總督始政25周年史 500쪽 되는 서적을 1만부 작성 배포」.
- 『해조신문』, 1908년 4월 26일, 「植林模範計」.
- 『대한협회회보』 제1호, 1908년 4월 25일, 「官報抄略(隆熙二年一月爲始)」.
- 『朝鮮總督府官報(号外)』, 1935년 10월 1일, 「始政二十五周年記念表彰者」.
- 『官報』 제3952호, 1925년 10월 26일, 「朝鮮總督府告示」 제245호(일본국회도서관).
- 『官報』 제7258호, 1907년 9월 6일, 「關東都督府告示」 제59호(일본국회도서관).
- 『官報』 제6588호, 1905년 6월 17일, 「台灣總督府告示」 제73호(일본국회도서관).

■ Abstract

Propagation and distortion of colonization based on 'picture postcard celebrating start of administra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Shin, Dong Kyu

This paper conducted comprehensive contemplation on 'picture postcard celebrating start of administration' issu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ostcard is planted with distorted historic value and idea of Japan. A postcard that most well displayed this is the government celebration postcard from 1910 which tried to represent Jingu Kogo from myth, invasion of Three Hans in Korea and even the theory of Japan-Korea ancestral homogeneity in extension. Second, the postcard contains high level of propagation technique such as distorting picture to enhance the colonial modernization of Joseon. Third, postcards related to modernization that occupy most of the postcard are evidence of colonial exploitation of 'resource → processing → exploitation' circle. Thus, 'picture postcard celebrating start of administration' is somewhat a distorted self-portrait of Japanese who celebrated colonization.

Key words :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celebrating start of administration, picture postcard, the Annexation of Korea, Jingu Kogo, modernization

■ 日本語抄録

朝鮮総督府の始政記念絵葉書からみた植民地支配の宣伝と歪曲

申東珪

本稿は朝鮮総督府が発行した始政記念絵葉書を総合的に考察したもので、以下の内容を明らかにした。第一、絵葉書には日本の屈折された歴史観と思想が移植されており、これをもっとも鮮明に見せてくれるのが1910年の絵葉書で伝説上の神功皇后と「三韓征伐」説、そしてその延長線上での「日鮮同祖論」を実際の歴史のように表象化させることであった。第二、絵葉書には朝鮮の近代化を強調するため写真を歪曲するなど高度なプロパガンダの手法が潜在されていたという点だ。第三、大部分を占めている近代化関連の絵葉書は、むしろ「資源→加工→流出」という植民地収奪構造の証拠になりうるもので、これをみると、始政記念絵葉書というものは殖民支配を自ら祝した日本帝国主義の屈折された自画像ともいえるものであった。

キーワード：朝鮮総督府、始政記念、絵葉書、韓国併合、神功皇后、近代化

<필자인적사항>

성 명: 신동규

소 속: 동아대학교 중국일본학부 부교수

연락처(이메일): eastasia@dau.ac.kr

투고마감일: 2018.04.30

심사개시일: 2018.05.15

게재확정일: 2018.06.15